한마음선원 청년회, 제13회 전국연합수련회

1월 6일 ~ 9일, 진주 지원 및 지리산 둘레길서 열려
4년 만에 개최…"내 근본 자리에 감사함과 믿음 채워"



진주=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나' 라는 관념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정진하며 걸어가야 하는지 순간순간 배우며 채우고 알아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본원 김성언)

"내 생각들을 내려놓은 2박3일 간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피곤하고 부담스럽다는 마음조차 내려놓고, 분별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대신 그 자리에 웃음과 충만함을, 내 근본에 대한 감사함과 믿음을 채워놓을 수 있었습니다." (본원 구자영)

한마음선원은 본원과 전국 지원 청년회를 대상으로 1월 6일부터 9일까지 '자유인이 되리라' 는 주제로 진주지원 및 지리산 둘레길 일원서 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전국청년연합수련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올해로 4년 만에 열렸다. 1월 6일 첫날 입재식은 진주지원에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은 법문을 통해 "내 마음이 부처면 처처가 모두 부처이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의 근본과 더불어서 같이 간다고 하면 모두가 부처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 그 에너지가 얼마나 좋고 이익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하는 것도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발전으로 두루 이익 되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게 아주 감격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고 말했다. 이어 혜근 스님은 "실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해 보지 않으면 자기 지혜가 안 생깁니다. 아무리 큰 스님 법문이 좋고 감흥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해봐야지 진짜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혜가 생깁니다.



한마음선원은 본원과 전국 지원 청년회를 대상으로 1월 6일부터 9일까지 진주지원 및 지리산 둘레길 일원서 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그러한 실천을 더불어서 하면서 마음 기른다는 생각으로 이번 수련회를 임하시면 나를 바꿀 수 있죠. 그게 우리 공부의 핵심입니다. 나를 바꾸면 내 인연이 다 바뀌는 겁니다. 내 자신의 벽을 넘기는 게 어렵겠지만, 자기를 넘어가야지 자기 근본과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증을 따야 진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런 마음을 저마다 세우시길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둘째 날에는 지리산으로 자리를 옮겨 '내 마음과 만나는 시간, 길 위에서 나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각 청년회 지도법사 스님들과 200여 청년회원들은 둘레길 걷기에 나섰다.

이번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저녁의 촛불재였다.〈왼쪽 작은 사진〉 참가자들에게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뇌를 함께 나누고, 본래 밝은 내면의 근본 자리를 지켜보며 자기 자신은 물론 모든 일체 생명들이 다 밝아질 수 있도록 마음을 내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인 셋째 날은 다시 진주지원으로 이동해 지원장 혜근 스님의 법문을 끝으로 청년 연합 수련회를 회향했다.

변지영 한마음선원 청년회원은 "몸을 다 던져서 공부하신 지원장스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얼마만큼 공부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역청소년에 장학금

천곡중 · 호계고에 600만 원
사찰 경내 조경사업 설명회도
2025년 12월 불사 완공 예정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1월 8일 대웅전에서 개최한 장학금 전달식에서 울산 천곡중학교 3학년 안은영 학생 등 천곡중학교 학생 15명과 울산 호계고등학교 3학년 배혜령 학생 등 3명에게 각각 20만 원과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지원 스님, 천주현 신도회장, 윤건우 명예회장 ,울산 호계고등학교 한현숙 교장, 울산 천곡중학교 임복룡 교감, 설영자 학교운영위원장, 선법합창단 및 불자들이 참석했다.

혜안 스님은 법문을 통해 "장학금은 한마음선원에서 한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선원의 어린이 학생회 청년회 등 젊은이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했다"며 "그 마음의 은혜로 어려움과 외로움, 아픔을 극복 하고 마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어디서나 훌륭한 사람이 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천곡 중학교 장학생을 대표해 장학금을 받은 안은영 학생은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것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고 한마음도리를 공부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생이 되고 큰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송년법회 때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던 어린이회공연이 이어졌다. 김수인 학생의 오라버니 노래에 이어 어린이회 노래 달팽이의 하루, 댄스셀럽이 되고 싶어, 학생회 노래 꿈꾸지 않으면, 댄스 나팔바지공연이 이어졌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의 장학금은 대행 큰스님 생전 소아암 환자돕기행사 때 '신심을 챙겨라' 는 말씀과 함께 울산 북구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제안한 이후 울산지원에서는 스님과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과 바자회, 팥죽 나누기 등 여러 가지 행사로 보시금을 모아 장학금을 마련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울산지원 경내 조경 불사 설명회도 열렸다. 울산지원 조경불사 사업은 택지개발로 2만 4000㎡의 부지에 계절감을 느끼도록 40여 가지의 다양한 나무를 심어 조성될 예정이다. 조경사업은 2025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운문사승가대학, 졸업식 · 명성 강백 전강식



청도 운문사(주지 진성)는 1월 6일 경내 청풍료에서 제59회 운문사승가대학 졸업식, 제11회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졸업식, 제2회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연구과정 졸업식, 제7회 법계 명성 강백 전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주지 진성 스님, 율주 일진 스님, 강주 진광 스님, 학장 운산 스님, 전강제자 및 졸업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강식에서는 원경 현견, 원견 정운, 원성 송운, 원서 현서, 원공 성법, 원덕 동우, 원철 동호 스님이 명성 강백으로부터 전강의 증표인 전강첩과 발우, 가사를 받았다.

전강제자 대표 현견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명성 강백을 모시고 전강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음을 부처님께 고하고, 스승의 수행과 정진을 본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며, 바르게 전하기 위해 물러남 없는 정진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명성 스님은 전강제자들에게 각각 법호와 전강의 증표를 내리고 "대강백이 되어 불교발전에 이바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학감 영덕 스님의 학사보고에 이어 제11회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졸업식과 제59회 운문사승가대학 졸업식이 봉행됐다.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연구과정 원각 스님, 전문과정 현묵, 혜철, 동암, 도현, 정현 스님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명환 스님을 비롯한 23명의 스님들이 운문사승가대학 졸업장을 받았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성불선원 제석천도' 울산시 유형문화재 지정



울산 '성불선원 제석천도' 가 울산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울산 성불선원(원장 혜안)은 구랍 15일 조선 후기 불교회화의 시대적 특성을 보여주는 '성불선원 제석천도' 가 울산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성불선원 제석천도' 는 세로 112cm, 가로 55.8cm의 크기로 비단천에 채색됐다. 화기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작품의 도상과 사용된 안료의 색감으로 미뤄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 경상도 지역에서 제작돼 봉안된 불화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중앙 의자에 앉아 연꽃 줄기를 들고 있는 제석천을 크게 부각시키고, 앞에는 좌우에 공양물이 든 쟁반을 들고 있는 보살형 천녀 2명과 그 옆에 일월관을 쓰고 홀을 든 제왕형 천자 2위가 시립해 있다. 화면 상부 제석천의 좌우에는 번을 들고 있는 천녀 4위가 배치됐고, 그 뒤로 병풍을 세워 배경을 모두 채웠다.

울산시는 "작품은 안정된 구도의 화면과 유려한 필선, 세필로 그려진 문양의 공교함 등이 잘 드러나 있다"며 "다른 존상도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존상태 또한 양호해 울산시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로 지정 ·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지리산 화엄사, 신년하례법회 봉행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는 1월 7일 화엄원에서 '계묘년 신년하례 및 화엄법회' 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덕문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제19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덕문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계묘년 새해에는 자비와 인욕을 실천해야 한다. 세상 모든 것에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불자의 기본이고, 자비도 인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덕문 스님은 최근 BTS 멤버 RM과 차담 내용이 기사화 된 것에 대해 "화엄사가 배려가 부족했고, 편하게 쉬게 하지 못했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굉장히 좋은 생각과 맑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음악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화엄사는 전통미술공예학과 이준수, 허윤 학생에게 사회단체 후원증서와 후원금 500만 원을, 류현우, 박소정, 이선주, 허금강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사사자삼층석탑 효사랑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도 진행했다.

특히 이날 화엄사는 '천년의 역사를 지난 화엄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새로운 천년을 맞아 화엄사가 준비해야 할 것' 에 대한 영상을 상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연, 진우 스님 초청 법회



광주불교계가 코로나19 이후 첫 연합법회를 개최하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와 광주불교단체는 지난 1월 6일 광주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성도재일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불교는 한국의 1700 역사와 함께했다. 근래 들어 불교도 전통문화적인 것 외에도 부처님의 진리를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 정체성을 찾고 삶의 행복과 이고득락을 위해서는 불교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을 빛낸 주인공에 대한 시상식과 기금전달식도 진행됐다. 매년 광주지역 불교를 위해 가장 많이 헌신한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2불자대상에는 광주불교연합회 양행선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이어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의 불교회관 건립 기금 1000만 원과 조계종 승보회 장학금 전달식도 열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성 가야명상문화원 개원

1월 7일 개원식, 본격 운영



건강한 삶을 위한 심신치유 복합명상문화 공간인 가야명상문화원이 문을 열었다.

가야명상문화원(원장 서병찬)은 1월 7일 경남 고성군 마야면 현지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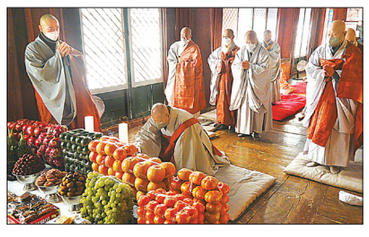
이날 개원식에는 고성 불교사암연합회장 약수암 수운 스님, 통영불교사암연합회장 용화사 종묵 스님, 옥천사 마가 스님, 경주 황룡사 도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한국불교상담학회장 안영규 교수 등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개원식을 가진 가야명상문화원은 소리치유명상, 울림체험, 촛불명상, 행복찾기 절 명상, 숲 명상체험, 오감명상 혼례체험, 임사체험, 마을 고택체험의 프로그램으로 3월에 개강할 예정이다.

개원식에서는 서병찬 원장의 저서 〈치유명상이 답이다〉 출판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또 가야명상문화원은 한국불교상담학회, 상락정사, '연' 힐링명상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명상치유문화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성원 대종사 41주기 추모재 봉행



고창 선운사는 1월 10일 대웅보전에서 운기당 성원 대종사 41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추모재는 죽비 3배에 이어 행장소개, 종사영반, 분향 및 헌다, 입정, 문도인사말, 공지사항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도를 대표한 혜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은사스님의 41주기 추모재를 준비한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대중스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다.

1898년 고창군 해리면에서 출생한 운기 스님은 석전 영호스님의 법제자이자 전강제자로 선운사 주지와 백양사 강원 강주를 역임하는 등 후학의 교육에 헌신했다. 1982년 세납 84세, 법랍 68세로 입적했다.

한편, 성보박물관에서는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불기 2567년 1차 교구종회가 열렸다. 총무국을 비롯한 교구의 현황 보고에 이어 2022년 결사 및 2023년 예산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또 최근 사의를 표명한 교구 선거관리위원에는 무등 스님이 선출됐다. 기타 안건으로는 교구 성지순례에 대한 안건토의와 말사 포교지원비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삼론종, 1월 9일 신년법회 봉행



대한불교삼론종은 1월 9일 계묘년 신년 새해를 맞아 종정 혜승 대종사 주석처인 경기도 포천 보문정사에서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지경 스님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종정 혜승 대종사는 "우리 스님들 자신부터 수행자로서의 자세와 우리 삼론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천리길을 가기 위해선 첫걸음이 중요하듯이 종단 시무식으로 계묘년을 시작하는 첫 날,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발심을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 해불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교종의 시조인 우리 삼론종의 교육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신년 초에 대한불교삼론종 불교대학을 개설하게 되었다.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교종의 유전자를 맘껏 뽐내며 교육을 통한 종단의 재도약을 이뤄내자"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해불 스님은 "토끼와 같은 번쩍이는 지혜를 함께 공유해 화쟁과 번창으로 거듭나는 삼론종이 될 수 있도록 종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